

벤투리의 초기 이론과 작품에 나타난 맥락적 사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Robert Venturi's Contextual Approaches in his early theories and works

Author 박형진 Park, Hyung-Jin / 정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실내건축학박사
김자경 Kim, Ja-Kyung / 정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조교수, 이학박사

Abstract Robert Venturi's theories like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and 'Symbolism of Architecture' had a major impact on architects in postmodern culture and we could have his contextual understandings in those theories. In his early books,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and 「Learning from Las Vegas」, Robert Venturi showed theories related to context several times. But with looking at existing books or papers, we could barely see well-organized studies about his contextual understandings. So this study shows contextual approaches and thoughts with those theories, 'Complex and contradictory architecture', 'Architectural order and conventional architecture', 'Discontinuity in internal and external architecture', and 'Symbolism of architecture' in his two books. In those four theories, Venturi's contextual understandings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he developed contextual theories in architecture, understanding a whole building embracing each architectural factor, with architectural thoughts of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Second, he stressed architectural order to link each contradictory factor and used conventional architecture, as for existing common and ordinary things, to make available communication. Conventional factors were applied to urban viewpoints. Given the fact that contemporaries shared those factors, we could see contextual understandings in his approach. On top of that, unlike modern architects, he understood that functions of the inside and the outside were two different things. Based on contextual thoughts, he tried applying 'façade' that is one side providing an interface between in and out of a building to surroundings. Last, he wanted to express any meaningful connection between present and past, using symbolism in architecture. Presented by symbolism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functions, architectural uses, historical meaning, ordinary factors, or something were also based on sharing in contemporary people. As the methodology to show these contextual factors, Venturi used an approach of symbolism.

Keywords 맥락적 사고, 복잡성과 대립성, 상징적 건축
Contextual Approaches,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Symbolism of Architect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벤투리는 저서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라스베가스의 교훈」을 통해 근대건축 이후 등장한 새로운 건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근대건축의 순수주의적, 영웅주의적 건축관을 비판하였다. 기능과 형태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해석하거나,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근대건축가들의 태도를 지양한 것이다. 현대의 도시적 상황에서 건축은 내외부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능 위주의 단순, 명료한 해결보다는 복합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문명에 적합한 건축적 해결은

현재까지 전승된 관습적 건축을 토대로 한 대중주의적 방법론에 의해 가능하다.

이러한 벤투리의 건축적 사고는 근대적 가치관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복합적, 대립적 건축', '상징적 건축' 등 벤투리의 주요한 건축적 사고의 근저에는 맥락을 중시한 가치관이 내재해 있다. 우선 벤투리가 언급한 건축의 복잡성, 대립성은 기본적으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¹⁾ 그는 전체성의 안에서만 진실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배제보

1) 벤투리는 저서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4장에서 근대건축의 양자택일적 사고를 비판하며, 양자공존에 의한 이중적 의미를 지닌 건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R. Venturi, 임창복 역,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동녘, 2004, p.72

다는 수용과 힘겨운 통일에 의한 건축적 해결을 주장하였다. 전체를 지향하는 방법론은 건축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수용하려는 맥락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의 도시적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것이다.²⁾

또한 그는 저서 「라스베가스의 교훈」에서 장식된 웨드를 통한 건축의 상징성을 집중적으로 논하였다. 여기서 상징은 현(現) 시대의 대표성에 대한 상징을 의미한다. 라스베가스의 예를 통해 현대도시의 상업적, 일상적 가치가 현재와 근시일 내에 도래하는 도시의 장소를 대표할 것으로 보았다.³⁾ 이는 공식적 관점에서 당시 미국의 도시적 환경을 중요시한 맥락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판단하건대 벤투리의 상징적 건축은 맥락적 사고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문헌과 연구를 살펴보면 벤투리를 미국의 대표적인 맥락주의 건축가로 기정사실화 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⁴⁾ 다시 말해서 그의 주요 건축관과 맥락적 사고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혹은 맥락적 사고가 건축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건축 이론과 작품에 내재해 있는 맥락적 사고를 고찰하였다.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 이론과 작품에 산재(散在)된 맥락적 사고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역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그의 맥락적 사고는 주요 건축관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벤투리의 초기 저서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라스베가스의 교훈」과 작품을 중심으로 맥락적 사고를 파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의 건축관은 복잡적·대립적 건축, 건축의 상징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

2) 벤투리는 현대도시 재개발계획의 상황에서 근대적 사고에 의한 획일적, 질서적 통일을 강요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며, 일상적 도시경관으로부터 유효하고 강력하며, 다양하고 모순된 대립의 질서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R. Venturi, 앞의 책, 2004, pp.98-101, 191, 222-223

3)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건축의 상징성은 현시대를 대표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 도시의 장소적 특성은 근대건축의 영웅주의적, 순수주의적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라스베가스로 대표되는 현대도시의 -장식된 웨드에 의한 각종 간판, 사인 등의- 상업적, 일상적 경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R. Venturi, 김정신 외 1인 역, 라스베가스의 교훈, 태림문화사, 1983, pp.145-149

4) 기존 연구 조사는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의 논문집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학술발표대회논문집은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 벤투리의 맥락적 사고에 관한 이론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예상외로 매우 적었으며, 주요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정은 벤투리를 미국 맥락주의의 대표적 건축가로 보고 이론과 작품을 통해 맥락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이동연은 벤투리의 맥락주의를 현대건축에 적용하는 방법론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황연숙의 연구는 벤투리의 맥락적 사고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건축 표현에 나타나는 의장적 특성을 파악한 것이다.

는데,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사고가 드러난 벤투리의 주요한 건축 특성을 복합적·대립적 건축, 관습적 건축, 불연속적 내외부공간, 건축의 상징성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상기한 두 저서에 나타난 이론과 수록된 작품을 근거로 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3장 도입부에 기술하였다.

각 장에서 논한 주요한 방법론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근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 나타난 맥락적 건축의 특성과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벤투리의 맥락적 사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우선 각 절의 첫 단락에서는 앞의 네 가지 건축 개념을 고찰하였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맥락적 특성이 나타나는 사례를 통해 각각의 건축 개념에 나타난 맥락적 사고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접근 방법이 실제적 측면에서도 유효한 방법론이었음을 밝히게 된다.

벤투리 건축의 이론적 기반은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두 저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의 후기 건축에 나타나는 맥락적 특성은 초기와는 다른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⁵⁾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두 저서에 나타난 이론과 대표 작품을 토대로 벤투리가 활동을 시작한 초기의 맥락적 사고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벤투리의 건축적 특성 및 맥락적 사고는 건축물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및 실내 기물 등의 요소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실내디자인적 측면에서도 연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근대 이후 맥락적 건축의 등장과 의미

건축에서 맥락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선 문학, 예술에서 사용된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우스(A. Hauser)는 예술의 창조와 수용을 사회적 연관을 통해 묘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예술가의 지위는 적극적인 사회적 이해와 참여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예술창조의 주관적 충동은 사회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⁶⁾ 이는 예술을 단일 개체로 취급하려는 태도를 지양하는 것으로 예술과 관련된 주변 환경, 역사적 내용, 그 외의 외적인 제반 상황들과의 관련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면 모든 예술 작품의 평가는 개별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며, 맥락(Context)을 고려하여

5) 벤투리는 시애틀 미술관, 런던 국립미술관 증축건물, UCLA 대학의 맥도날드 의학 연구소 등의 후기작품에서 해당 장소의 도시와 가로의 역사적 맥락과 흐름을 수용하여 건물 내부공간에 건축적 길(architectural path)을 만든다. 또한 벤자민 프랭클린 광장에서는 이미지 공간개념을 도입하여 역사의 시간과 흔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고전주의적 형태구성과 장식적 패턴을 통한 맥락성의 재구성을 탈피한 진보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pp.38-39, 70-71

6) Arnold Hauser, 예술과 사회, 한석중 역, 홍성사, 1982, pp.247-252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⁷⁾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맥락은 위의 컨텍스트(Context)를 번역한 것으로 본래 언어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부연하면 우리는 하나의 문장에서 모호한 단어를 보았을 때 문장 전, 후의 관계를 통해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당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한다. 연관된 단어를 통해 해당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맥락은 글, 전후 관계 등에서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요컨대 텍스트(text)는 구축(context)을 통해 문맥상에 단어 자체로서의 형상(figure)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장 속에서 배경(ground)을 함께 내포하는 것이다.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맥락의 개념을 건축적 상황에 적용하면 배경은 대지로, 형상은 건축물로 치환할 수 있다. 이때 건축물은 대지의 폭넓은 개념인 장소와 관련을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소와 관련된 실존적 건축 역시 인간을 중심으로 주변 상황을 해석한 것이며, 그것과의 관계를 통해 건축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⁸⁾ 인간 중심의 진정한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장소와 밀접한 맥락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건축적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 건축물의 존재적 의미의 획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의 도시적 상황과 건축 간에는 연속성과 일관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근대건축은 필로티를 통해 지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인간 해방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주변 환경과 분리, 고립됨으로써 근대건축은 인간성 상실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는 쟁크스(C. Jencks)가 근대건축의 실패 원인과 관련하여 언급한 도시적 맥락에 대한 이해 결핍, 관계를 무시한 건축물의 오브제적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근대건축에서 맥락의 부재는 근대건축이 실패한 주요 원인인 것이다.⁹⁾

근대건축의 실패는 현대의 도시적 공간 역시 건축물과 연속적인 실체로서 서로 맥락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근대건축의 암울한 상황은 이후 주변의 맥락적 관계를 통해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의 도시적 공간은 건축물과 연속적인 실체로서 서로 맥락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그 존재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당시의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오브제적 건축에 대한 반발로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유럽의 신흥리주의 계열의 건축가들에 의하면 도시적

맥락은 현상 이면의 내재적인 법칙 속에서 자율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로시(A. Rosi)는 사회의 역사적 공동 기억의 산물과 공동 의식의 표현물로서 건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의 유형학적 개념의 건축은 단순한 물리적, 형태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건축가의 주관적 쉐마를 바탕으로 한 건축가의 창조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과거 건축과의 맥락을 통한 사회적 쉐마가 형성되어야 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그는 장소의 유추를 통한 '기억의 예술'을 추구하고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한 것이다.¹⁰⁾

유럽의 신흥리주의자들이 과거의 집합적 기억을 토대로 한 유형학을 기반으로 도시의 맥락을 유추하였다면 미국적 맥락주의의 대표주자인 벤투리는 현재 미국의 도시적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간판, 사인 등의 대중적, 상징적 가치를 경관의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로시가 전통에서 추출한 자율적이고 기본적인 건축형태, 즉 단순화와 환원을 통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한 반면에 벤투리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 친숙하고 익숙한 요소들을 생소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맥락적 의미를 생성하고자 하였다.¹¹⁾ 또한 그는 현대도시의 맥락적 상황에서 건축물의 파사드의 역할을 중시함으로써 맥락에 대한 해석과 표현에서 로시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볼 때 근대이후 등장한 맥락적 건축에서 배경으로서 주변 환경은 가시적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며, 복합적인 유무형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¹²⁾ 뿐만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축의 맥락성은 주변 환경에 대한 건축가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특정한 건축가의 맥락적 사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맥락적 가치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벤투리의 맥락적 사고

근대 이후의 맥락적 특성을 지닌 건축들과 마찬가지로

10) 따라서 로시의 건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지니는 전체적 의미를 통한 유형학적 개념과 도시의 실체를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수단으로서 유추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길성호, 현대건축사교론, 시공문화사, 2001, pp.104-113

11) 로시의 방법론이 랑그(도시 조직과 유형)와 파롤(개개 건축의 재해석과 변용)의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의해 다소 단선적이라고 한다면 벤투리의 맥락적 해석은 보는 관점에 따라 사건이 달리 해석되므로 해석의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동연, 벤투리의 맥락적 사유의 재발견을 통한 맥락적 설계기법들의 제안, 대한건축학회, 2000. 12 참조

12) 인간의 장소가 시각적이고 물리적 경관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화, 공동체, 혼 등의 무형적 요소로 형성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E. Relph, 김덕현 외 공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p.77-104

7) 동정근, 맥락주의 건축, 공간, 1990. 8, pp.51-52

8) 박형진, 슬츠의 실존적 공간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건축 실내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2008, p.47

9) Charles Jencks, 백석중 외 5인 역, 현대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 태림문화사, 1991, p.112

벤틀리는 건축 내외부의 유, 무형적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해석, 적용하였다. 특히, 당시 미국 도시환경의 상업적 건축 등의 일상적인 물리적 요소와 함께 역사적 의미, 시간성 등의 무형적 요소들을 맥락적으로 중요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의 건축적 특성을 '복합적·대립적 건축', '관습적 건축', '불연속적 내외부공간', '건축의 상징성'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과 작품을 통해 맥락적 사고를 파악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복합적·대립적 건축'을 통해 맥락적 사고를 파악한 것은 그가 대립적 요소의 수용과 복합적 건축에 의한 전체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관습적 건축'을 통해 맥락적 사고를 파악함으로써 그가 건축에서의 대립적 요소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맥락적 사유와 관계된 건축적 질서, 관습적 건축을 도입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불연속적인 내외부공간'은 그가 근대건축과 근본적으로 다른 건축관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파사드를 통해 내외부의 환경적 요소를 수용하는 맥락적 관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관련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현대도시 경관의 본질적인 부분인 대도시의 가로변과 일상성을 도상학적 관계로 해석하였으므로 '건축의 상징성'을 통해 맥락성을 고찰하였다.

3.1. 복합적, 대립적 건축과 맥락적 사고

(1) 벤틀리의 복합적, 대립적 건축

벤틀리는 건축 주변의 다양한 제요소를 반영한 복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그는 예술의 경험적 측면과 현대사회의 경험적 풍부성, 애매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혼성적, 복합적, 비정형적, 모호한 건축을 지향하였다.¹³⁾ 관찰자의 지각적 측면을 강조하여 건축 형태와 의미의 풍부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 명쾌한 듯 보이는 근대건축을 단선적 사고에 의한 결과물로 보고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그가 현대건축에서 모호함과 긴장감을 지닌 이중적 의미의 건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¹⁴⁾

첫째, 현대의 도시적 상황에서의 건축은 이전보다 훨씬 분화된 복합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벤틀리는 '가치 있는 것은 여러 차원의 의미와 시점의 결합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 공간과 요구가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실행되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근대의 단선적 사고에 의한 단순, 명료

한 건축을 통해서도는 복합적인 도시현상을 건축에 담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건축물은 예술과 같이 복합적이고 대립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벤틀리는 예술적 회화, 시 등에 나타나는 의미의 복합성과 대립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호함, 긴장 등이 예술의 본질로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애매성의 미적 가치가 여러 레벨의 의미를 지니는 예술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고 이를 건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근대건축에 대한 반발로서 다양한 의미 차원과 다양한 관심을 유발하는 모호함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을 추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¹⁵⁾

현대건축의 기능이 복합화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시각적 모호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한 건축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하다.¹⁶⁾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건축의 거장들의 작품에는 단순성보다는 복합성이, 명확함보다는 모호함이 느껴진다. 예컨대 알토의 부오크센니스카 교회에서는 건물 전체의 기능과 음향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복합성이 느껴진다. 이러한 참다운 건축에 대한 욕구는 근대건축에 대한 반동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며, 이전 고전건축, 이탈리아 건축을 비롯한 알토, 칸 등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근대건축의 배제를 통한 단순함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복합적, 대립적 건축에 나타난 맥락적 사고

벤틀리는 '복합성과 대립성을 구비한 건축은 단편적인 관심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전체에 대한 전망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¹⁷⁾ 이는 현대건축의 대립적 요소의 수용, 복합적 건축에 의한 전체성의 획득 등을 통한 맥락적 사고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복합성과 대립성을 갖춘 건축을 통해 추구한 것은 '수용으로 얻는 힘겨운 통일', '전체성에서 존재하는 진실'이다. 예컨대 알토의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샤로운의 베를린 필하모니 홀의 평면과 공간에서 각종 건축적 요소들의 대등한 결합을 통해 전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극단적으로 가우디의 카사 구엘의 화장대는 많은 기능에 의한 맥락 없는 인접, 불연속, 불규칙한 곡면, 수평, 수직선과 사선, 대칭과 비대칭 등의 서로 대립하는 형태의 이중성을 통해 포괄된 전체를 완성한다<그림 1>.

대립적인 요소들은 모두 포괄됨으로써¹⁸⁾ 전체적으로 고유성을 획득하게 되며, 여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중

13) 복합적, 대립적 건축이 지니는 특성 중의 하나인 애매성은 1960년대의 '애매성의 시대'라는 시대적 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능과 구조에 의한 확실성이 주를 이루는 근대건축과 모순되는 상황인 것이다. C. Ray Smith: *Supermannerism*, Clarke Irwin Comp. 1977, p.173

14) 대립성을 지닌 건축물에 나타나는 양자공존에 의한 이중적 의미가 역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R. Venturi, 앞의 책, 2004, pp.50-71, 32-33, 4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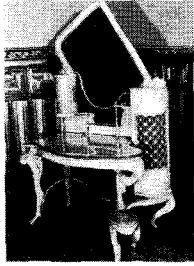
15) 이를 뒷받침하듯이 벤틀리는 초기 작품들을 통해 다양한 내부적 기능의 요구뿐만 아니라 건물의 공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복합적 요소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16) R. Venturi, 앞의 책, 2004, pp.39-42

17) R. Venturi, 위의 책, p.33, 191, 218-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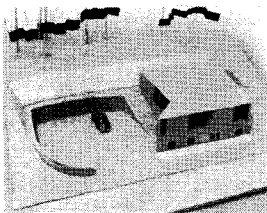
18) 벤틀리는 맥락 없는 인접을 배타적 관점이 아닌 포괄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R. Venturi, 앞의 책, 2004, p.131

요시하는 벤투리의 사고가 내재해 있다. 건축의 대립성은 양자공존과 이중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기능을 갖는 요소가 용도나 구조와 관련된 것이라면 양자공존은 이중적 의미를 지향하며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에 속한다. 이들 개념에는 건축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파악하고자 하는 맥락적 사고가 내재해 있다.¹⁹⁾



<그림 1> 가우디, 카사 구엘의 화장대, 20c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자공존은 양자택일이라는 근대건축의 전통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명백한 접합이나 명쾌함을 좋아하지 않으며 양자공존을 통해 여러 의미를 지닌 건축의 모호함과 긴장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대립된 요소들의 복합적 의미 조합을 통해 전체의 하나 된 건축을 의미한다. 그가 설계한 북 펜실베이니아의 방문 간호원 본부 건물의 외관은 양자공존을 통한 전체성을 추구한 예이다<그림 2>. 인접한 주차장과 건물은 서로 대립적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건물 외관의 돌출한 예각은 이중적 의미의 모호함과 긴장을 생성한다. 즉, 건물과 주차장의 대립적 이중성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주차장을 독립된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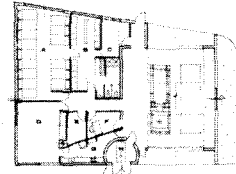
<그림 2> 북 펜실베이니아 방문 간호원 본부(모형), 1960

이중기능을 갖는 요소는 각 실의 용도나 구조 등이 건축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케일, 움직임, 구조, 공간에 대한 다양하며 모순된 체계를 하나의 전체 속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맥락적이다. 예컨대 칸의 건축에서 깔러리는 모호한 성격을 통해 복도, 방 등의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에로 사리넨이 설계한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기숙사는 벽돌조의 벽체, 덩굴이 덮인 경사지붕, 그릴형 창문 등의 대립적 요소를 연속적인 곡선형태의 외관을 통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²⁰⁾

더 나아가 벤투리는 건축의 복잡성·대립성과 관련한 맥락적 사고를 도시적 관점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축가는 일관된 조형 어휘를 통해 건축적 맥락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도 이를 규칙화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²¹⁾ 그가 주장하듯 산마르코 광장에서 느껴지는 일관된 공간

질서는 그것을 둘러싼 여러 건물의 높이, 양식, 규모, 리듬, 텍스처의 격렬한 대립에 기인한 것이다. 타임스 광장을 형성하고 있는 광고판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혐오스럽기 짝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립적 요인으로 인해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다.²²⁾

또한 벤투리의 건축에서 도시적 맥락은 조정된 대립적 관계를 통해 내부의 프로그램적 요구와 조합된다. 팔라디오가 설계한 궁정의 내부 평면은 직사각형이지만, 외형은 주변 가로 체계에 순응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인디애나주 소방서²³⁾의 파사드는 주변환경의 물리적 맥락과 함께 기능상의 요구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그림 3>.



<그림 3> 인디애나주 소방서, 1966

소방서는 외부적으로 공공시설로서의 상징적 가치를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소도시의 소방서로서 필요한 사적인 방을 수용해야 한다. 건물 정면 파사드에는 반원형의 호스 타워(hose tower)와 국기계양대를 통해 기념비성이 드러난다. 동시에 내부에 수용된 라운지, 부엌, 차고를 상징하는 크고 작은 스케일의 각종 창문(수평, 사각형)은 파사드를 통해 공공성과 대비되는 대립적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복합적인 전체를 형성한다.

3.2. 관습적 건축과 맥락적 사고

(1) 건축적 질서와 관습적 건축

건축의 속성상 대립적 요소들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²⁴⁾ 따라서 건축 내외의 영향인자들에 의한 복합적, 대립적 요소들은 전체성의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질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립성은 질서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며, 예외적인 불일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기서 질서는 대립적 요소들과 충돌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를 지향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연유로 벤투리는 이들의 관계를 '수용된 대립성'으로 칭하였으며, 또한 전체 속에서의 부적합한 관계는 '복잡한 전체'로 이해할 수 있다.

건축 시스템에 있어 질서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대립적 요소들에 의해 질서는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다. 건축의

19) R. Venturi, 위의 책, pp.72-88

20) 반면에 근대건축에서 이러한 이중기능은 거부된다. 즉, 요소는 분리되고 명확하게 접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1) 벤투리는 미스, 라이트, 포르투게, 알토 등이 사선(斜線)적 건축어휘를 주된 조형어휘로 사용함으로써 공간적 질서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R. Venturi, 위의 책, pp.116-117

22) R. Venturi, 위의 책, pp.103-104, 108, 117-120

23) 벤투리는 저서 「라스베가스의 교훈」에서 소방서 정면 파사드의 평범한 사인, 진부한 창문 등의 요소로부터 광범위하고 풍부한 의연적 의미가 발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R. Venturi, 앞의 책, 1983, pp.126-127

24) R. Venturi, 앞의 책, 2004, pp.89-90

내적 프로그램, 주변의 환경적 요인, 경험적 차원에서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변하는 질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⁵⁾ 그런데, 벤투리는 이러한 건축적 질서의 필요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건축적 관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관습을 따름으로써 일반적인 범주에서 강력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관습을 따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와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무조건적 미래지향적 태도보다 우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습적인 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건축가는 그것을 비관습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관습적인 것들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일반적, 대중적 요소들인데, 이들을 비관습적인 방법으로 조합,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 수 있다.

익숙한 것을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수법은 팝 아트 작가들의 그것과 유사하다.²⁶⁾ 그들은 규모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문맥을 통해 비범한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새로운 것은 옛 것과 함께 존재할 때 그 존재적 가치가 살아나며 혁신적인 가치가 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영웅주의적 사고를 토대로 혁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근대건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요컨대 벤투리는 옛 것, 익숙한 것, 평범한 것들을 토대로 건축을 행할 때만이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건축적 가치가 생성될 것으로 믿고 있다.

(2) 관습적 건축에 나타난 맥락적 사고

벤투리의 관습적 건축에 관한 이론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맥락적 사고가 내재해 있다. 전술하였듯이 관습적 건축 요소는 제작, 형태, 용법 등이 지극히 일반적인 것을 지칭한다. 고급문화의 산물이 아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규격화된 평범한 제품들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평범한, 일상적 요소들이 건축의 질서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규격화 된, 진부한, 평범한, 관습적인 요소들은 동시대인들과의 일상에 대한 공유를 전제로 하며,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그가 관습적 요소를 통해 건축을 해석한 것은 공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맥락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벤투리가 설계한 서 필라델피아의 레스토랑은 두 채의 가옥을 합쳐서 만들었는데, 외관 파사드의 구조 기둥과 음영 처리된 벽체, 간판의 대비된 색감을 사용함으로써 이중성을 표현하였다. 반면에 실내는 그 지역에서 흔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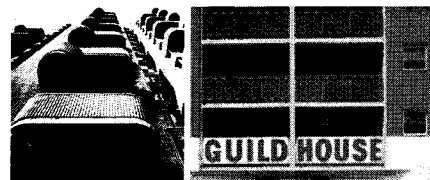


<그림 4> 서 필라델피아 레스토랑 개수, 1962

볼 수 있는 저렴한 테이블과 흰색 토네트 의자, 조명기구, 노출된 덕트, 다소 과장된 사인 등으로 장식하였다<그림 4>. 이는 이용자에게 익숙한 일상적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주변 학생들을 위한 식당의 용도를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등은 동시대인들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여 형성되는 것으로²⁷⁾ 벤투리는 레스토랑의 실내에서 관습적 요소를 통해 공시적, 통시적 맥락을 해석, 표현하고 있다.

건축의 대립적 요소들과 질서가 절충하는 과정에서 관습적 요소를 이용한 벤투리의 맥락적 해석은 다음 문구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통속성과 혼란을 포함하는 옛 것이 새로운 건축에서 필연적인 맥락이 되며 새로운 건축은 옛 것을 위한 필연적 맥락이 된다.'²⁸⁾ 이를 따르면 건축의 창조와 선택에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방법과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 즉, 전통적, 관습적 요소를 통해 맥락적 사고의 표현이 가능하다.

그는 폴 루돌프의 크로포드 메이너와 자신의 길드 하우스를 통해 근대건축의 혁신적인 방법론을 부정하고 관습적인 건축이 효과적임을 분석하였다.²⁹⁾ 특히, 두 건물의 창문들은 창조와 선택의 예로서 비교 대상이다<그림 5>. 루돌프 건물의 캔틸레버 발코니는 장식을 거부한 통합된 구조체이다. 반면에 벤투리의 그것은 구조적이라기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속 패턴으로 장식된, 재래식의 사각형 오르내리기식 창문이다. 루돌프의 건물에 사용된 건축 어휘가 영웅적이고 독창적이라면 벤투리의 그것은 -창문의 예에서 보이듯이- 진부하고 추악한 것들이다. 하지만 벤투리의 그것들은 주변의 일상적 맥락을 반영한다. 요컨대 그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부한 요소들을 통해 주변의 맥락적 상황을 표현하되, 형태를 왜곡하거나 축적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맥락을 재해석하였다.



<그림 5> 크로포드와 길드하우스의 창문 비교

27)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는 건축이 존재함으로써 발생되는 장소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들은 동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적 맥락 요인이다. 진정, 현대 미국건축의 Contextualism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3. 8, p.38

28) R. Venturi, 위의 책, p.94

29) R. Venturi, 위의 책, 1983, pp.88-100

25) 벤투리는 이러한 질서의 한계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R. Venturi, 앞의 책, 2004, pp.90-98

26) R. Venturi, 위의 책, pp.98-100

또한 벤투리는 건축의 질서와 관습에 나타난 맥락적 사고를 도시적 관점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즉, 그는 건축에서의 질서와 절충은 건물의 개수나 시가지 개발에 요긴하다고 하였다.³⁰⁾ 또한 관습을 비관습적, 반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³¹⁾도 현대의 도시적 경관에 유효하다고 하였다. 그가 현대의 전자적, 혁신적 기술에 눈높이를 맞추고자한 것은 맥락적으로 중요하다.³²⁾ 이는 근대건축의 추상적, 순수주의적 표현과는 다른 것이다. 현대도시 경관의 간판, 네온 사인 등의 평범함과 저속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문맥을 유지하면서도 적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3.3. 불연속적 내외부공간과 맥락적 사고

(1) 내외부공간의 불연속적 특성과 파사드의 역할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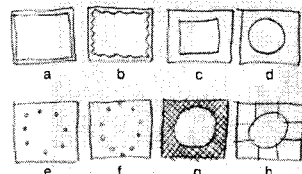
건축 내외부공간의 연속적 흐름은 근대건축의 주요한 특성이다. 그러나 벤투리는 외부가 내부를 반영해야 한 다거나 유동적 흐름에 의한 내, 외부공간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근대건축의 주장에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는 각각의 본연의 목적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뚫려진 개구부를 통해 내외부공간의 연속된 흐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³⁴⁾

그가 건축 내외부공간의 불연속성을 주장한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건축 내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벽으로 공간을 둘러싸는데 있다. 벽체는 내부공간의 일체감을 위해 존재하며 외부로부터의 단절감은 중요하다. 이에 벽체에 존재하는 개구부는 조심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내부는 복잡한 프로그램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외부는 주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단순한 외피와 복잡한 내부공간은 대위법적 과정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건축처럼 내외부공간의 연속적 흐름이 당연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처럼 각각의 성격이 다른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벤투리는 이전의 역사적 건축 사

례를 통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예로 사보아 주택처럼 정리된 외피 안에 내부의 복잡성을 수용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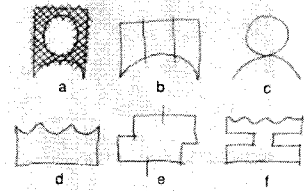


<그림 6> 외벽체와 내외부공간의 관계에 대한 다이어그램

과 내부 마감벽을 분리하여 다양한 건축적 효과를 의도함으로써 내외부의 대립적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다<그림 3-6, a~d>. 여기서 내부 마감벽은 열주와 다양한 커로의 전환을 통해 빛을 조절함으로써 건축적 요구를 수용하기도 한다<그림 6, e~f>. 더 나아가 내외부의 분리된 커를 통해 중간영역을 형성함으로써 내외부공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대개공간을 형성할 수도 있다<그림 6, g~h>. 마지막으로 내부공간의 복잡한 요구로부터 건축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³⁵⁾ 외부적 요인과의 대립이 필연적인데, 여기서 충돌하는 내외부의 복합적 요구를 건물 전면의 파사드를 통해 수용하는 방법이 있다.

(2) 내외부공간의 불연속성과 맥락적 사고

이처럼 벤투리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역활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내외부의 연속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내외부공간의 요구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 접점으로서 건축물 파사드의 역할을 중시하는데, 여기에 그의 맥락적 사고가 나타난다.³⁶⁾



<그림 7> 주변환경에 대한 파사드의 반응

그는 건축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영향이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내부적 요구와의 점진적인 파사드의 여러 건축적 해결을 통해 수용 가능하다<그림 7>. 이 점에서 그가 근대의 오브제적 건축에 반하는 사고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며, 주변 환경과의 맥락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점이 명백히 드러난다.³⁷⁾ 요컨대 벤투리가 내외부공간의 불연속적 관계에서 점점으로서 파사드(외부벽체)를 주목하고, 이를 수단으로 도시환경에 적응하고자 한 것은 그의 맥락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의 오하이오주 시청사 계획안의 기념비적 파사드는 주변환경의 물리적 맥락과 함께 기능상의 요구를 복합적

30) R. Venturi, 앞의 책, 2004, p.92

31) 본 연구의 <그림 5>의 길드 하우스의 창문을 참조

32) 벤투리는 엑스포 '67의 체코슬로바키아 전시장에 전시된 상점과 움직이는 영상이 관람객들에게 커다란 주목을 받은 것을 예로 들어 이미 현시대의 진보된 가치는 전자혁명이라고 하였다. R. Venturi, 앞의 책, 1983, pp.146-147

33) 벤투리는 건축물의 내, 외부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며, 주변 환경과 내부의 접점으로써 외부벽체(파사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건축관을 통해 벤투리의 맥락적 사고가 드러나게 된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불연속적인 내외부공간과 그들을 매개하는 파사드에 관한 건축 이론을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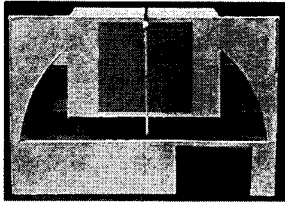
34) R. Venturi, 위의 책, 2004, pp.151-183

35) 벤투리는 건축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공간이 형성되며, 이것이 건축 외부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다. R. Venturi, 위의 책, pp.180-183

36) 이는 위에서 고찰한 벤투리가 내외부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마지막 방법을 지칭한다.

37) R. Venturi, 위의 책, pp.185-190

으로 고려한 결과이다<그림 8>. 시청사 건물은 외부적으로 공공시설로서의 상징적 가치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림 8> 오하이오주 시청사 계획안(모형), 1965

또한 내부적으로는 시의회를 위한 기념비적 공간과 일반적인 사무공간 등의 기능적 공간구성이 요구된다. 이에 전면의 거대한 출입구와 아치로 구성된 의사(擬似)적 파사드는 시청사라는 공적 성격을 상징하면서 주

변의 도시적 경관과 공장의 거대한 스케일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중 파사드 중 뒷면의 작은 창문들은 회의장, 사무실 등의 내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이 건물의 파사드는 내외부의 맥락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부연하면 도시적 환경에서 내부와 외부의 대립은 건축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가 언급한 ‘난해한 질서(difficult order)’는 건축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을 반영한 전체지향적인 것을 의미한다.³⁸⁾ 그래서 그는 “복합적 의미를 지닌 건축은 외벽체를 통해 공간과 용도가 충돌하며, 안과 밖의 갈등과 해법이 공존한다.”고도 하였다. 이는 내외부의 차이를 인식하되, 전체적인 맥락의 틀 속에서 건축적 해석을 내린 것이다. 결국 그는 건축 내외부의 본질적 목적과 관련하여 근대의 기능주의, 국제주의 건축에서의 협의적 목적을 지양하고 폭넓은 의미의 복합적 방법을 통해 장식적 가치를 추구한 것이다. 미국 대도시의 상업적 건축, 일상적 가치 등의 외적 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기능, 용도 등의 내적 요인 등의 맥락적 요소들을 복합적, 대립적 방법론을 통해 통합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3.4. 상징적 건축과 맥락적 사고

(1) 상징적 건축과 장식된 웨드

벤투리 건축에서 의사전달은 구체적인 형상의 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팝아트의 형상성(representation)³⁹⁾의 개념이 중요한 건축적 요소로 작용한다. 건축에서 형상성은 도상학적인 개념으로 서술적 추상과 조합된 부착된 장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상징과 장식을 통한 의사 전달을 목표로 한 것인데, 근대 건축에서 중요시한 공간적, 구조적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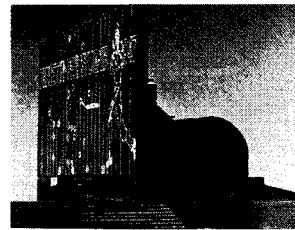
38) Robert A. M. Stern, *New Direction in American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1977, p.50

39) 벤투리는 일상적, 대중적 이미지와 사물요소를 건축에 차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도상학적인 개념으로 서술적인 추상과 조합된 장식에 의존함으로써 팝 아트의 형상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40) Robert Venturi, “Diversity, Relevance and Representation in Historicism or Plus ca Change...” *Architectural Record*, June, 1982, p.116

부연하면 벤투리는 과거로부터 전승된 경험의 연상작용을 통해 보다 풍부한 의미의 건축을 추구한다. 근대건축이 영웅적이고 독창적이라면, 벤투리의 상징적 건축은 진부하고 추악한 건축이다.⁴¹⁾ 인디애나주의 소방서와 길드 하우스의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 정면 파사드의 추악함과 진부함(ugly and ordinary architecture)은 주변 가로변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불어 정면 파사드의 사인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벽돌 재료, 상하 개폐식 창문 등은 풍부한 내, 외연적 의미를 발산한다 <그림 3, 5>.⁴²⁾

이처럼 벤투리는 건축물의 외부입면을 통해 건축물의 상징과 의미를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장식적 웨드(decorated shed)’의 개념이 등장한다<그림 9>.⁴³⁾ 이는 모더니즘 건축의 ‘건축적 오리(architectural duck)’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건축적 오리가 내적 기능을 외부에 그대로 드러



<그림 9> 장식된 웨드(국립대구기념관)

내는 개념인 반면에 장식적 웨드는 건축내부의 공간, 구조와는 무관하게 외부 입면에 상징적 의미가 적용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의 외부입면은 후면의 건축적 기능, 내용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⁴⁴⁾

현대도시의 상업건축에서 필요한 것은 건축적 오리가 아닌 장식적 웨드를 통한 상징적 건축인 것이다.

예컨대 그는 고딕, 르네상스의 역사적 건물의 비유를 통해 현재 라스베가스의 상징적 건축이 현대건축에 유효한 것임을 주장하였다.⁴⁵⁾ 고딕 성당의 정면과 측면이 유기적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모순이 아니라 건축물(성당)이 지니는 고유적 성격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정면 파사드는 광장에 대한 광고 역할로서 장식적 웨드이다. 측면의 형상은 성당의 기능을 수용하는 건축적 오리이다. 지난 수백 년을 거치며 장식된 웨드로서 고딕 성당의 정면 파사드가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수십 년간 형성된 라스베가스의 대형 간판은 현시대를 반영하는 상징주의 그 자체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⁴⁶⁾

41) R. Venturi, 앞의 책, 1983, p.98, 126-127

42) 벤투리는 예컨대 길드 하우스의 문자(사인), 흰색 벽돌, 상하 개폐식 창문 등은 의미 전달체로서 외연적이며 동시에 내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외연적인 측면은 문자(사인)을 통해 표현되는데, 근대건축에서는 건축의 문장적, 외연적 측면을 회피하였다. R. Venturi, 위의 책, pp.82-100

43) 이러한 사고는 건축물 외부 입면의 상징적 역할을 증시하여 입면과 배면의 내적 기능을 분리한 것인데, 이는 내부의 요구가 외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근대건축의 기본 논리를 거부한 것이다.

44) 당시의 기능주의적 순수건축의 측면에서 볼 때 내, 외부공간의 불일치,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정적인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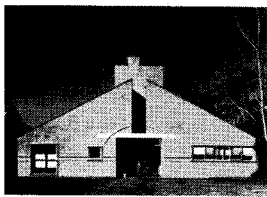
45) R. Venturi, 위의 책, pp.101-105

46) R. Venturi, 앞의 책, 1983, p.103

여기서 라스베가스의 대로변에서 볼 수 있는 상징적 체계가 현대 도시사회의 본질적 측면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의 관점에서 근대건축에서 말하는 19세기의 대량생산, 공업화 등에 의한 기술, 가치는 이미 구태적인 것이며, 현시대에 맞는 진보된 전자, 정보 혁명에 의한 건축적 상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식된 웨드를 통한 라스베가스 대로변의 상징성은 현대 사회를 대변하는 시스템으로서 현대건축이 지향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⁴⁷⁾

(2) 건축의 상징에 나타난 맥락적 사고

형상성의 개념을 통해 벤투리의 맥락적 사고가 드러난다. 예컨대 그는 건축물의 용도와 목적을 형상적 요소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은 동시대의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로서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맥락적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사인(sign)이나 심벌(symbol)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규칙이 존재해야 한다. 이들 역시 동일 문화권에서 가능한 것으로 상징성을 사용한 방법론 자체가 맥락적 요인을 내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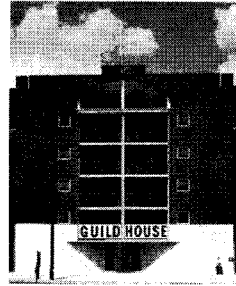
<그림 10> 어머니의 집, 1962

그는 어머니의 주택에서 통속적인 주택요소인 창, 굴뚝, 박공을 입면에 사용함으로써 이곳이 주택임을 암시하고 있다<그림 10>. 건축의 상징을 통해⁴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의 공시적, 통시적 맥락을 표현한 것이다. 서 필라델피아 레스토랑의 외부 입면에 달아 맨 컵 모양의 구조물 간판 역시 구체적인 형상의 묘사를 통해 상업공간의 구체적 의미를 전달하려는 시도이다<그림 11>. 상징과 은유를 통한 맥락의 해석은 외부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의 실내 공간에도 나타난다. 실내 벽면의 커다란 문자(사인)와 평범한 페인트, 일반적인 토네도 의자와 천장의 노출된 덕트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물로서 이곳이 지역의 학생용 식당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4>.

또한 벤투리는 상징적 수법을 통해 당시 미국적 환경

47) 벤투리는 「라스베가스의 교훈」의 여러 부분에서 덕트를 통한 상징보다 장식된 웨드를 통한 진부한 상징을 논하고 있다. 부연하면 각각의 매체는 자기의 시대를 지니는데, 현대의 상업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상적 상징체계가 현시대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R. Venturi, 위의 책, p.127, 146-147

48) 진정 역시 형상성의 개념이 건축물의 내적 기능에 덧붙여 외적 컨텍스트를 건축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정, 앞의 논문, p.40



<그림 12> 길드하우스, 1963

기 때문에 근대건축의 순수주의적, 영웅주의적 방법은 현대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장식된 웨드의 상징적 기능을 통한 진부한, 평범한 건축인 것이다.

현대도시의 대로변에서 볼 수 있는 건축적 요소들은 추악하고 진부한, 즉 일상적이며 대중적이다. 이와 관련된 토착적인 재료들과 전통적인 형식들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맥락적 가치를 지닌다.⁵¹⁾ 길드하우스 전면 파사드의 문자(사인), TV안테나, 사각창문⁵²⁾, 최상층의 아치형창문, 벽돌 등 일상적, 평범한 요소들은 노인의 일상성과 지역적 맥락을 암시하고 있다<그림 12>. 요컨대 그는 일상적, 대중적인 맥락적 요소를 건축물의 외부입면의 상징을 통해 해석, 표현한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벤투리의 초기 이론에 나타나는 네 가지 건축 사고와 작품 사례를 통해 그의 맥락적 사고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투리는 복합성과 대립성을 갖춘 건축을 '수용으로 얻는 힘겨운 통일', '전체성에서 존재하는 진실'이라

49) Robert Venturi, 위의 책, pp.147-148

50) 장식적 웨드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현존하는 미국 도시의 경관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는 미국 도시에서 건물의 파사드는 배면의 건축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으며, 장소의 의미를 전달하는 광고물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의 맥락적 사고가 미국의 독특한 물리적 경관으로부터 발전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John W. Cook and Heinrich Klotz: Conversation with Architects, Praeger, 1973, p.249

51) 진정, 위의 논문, p.40

52) 길드하우스의 사각형 창문들은 주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서 명백히 주변 상황에 대한 상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친근한 요소이면서도 다소 형태가 왜곡되고 축적이 변화됨으로써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건축에 나타나는 상징적 수법은 팝아티스트들의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R. Venturi, 앞의 책, 1983, p.53, 72.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상징을 통해 맥락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친숙한 요소를 그렇지 않은 방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축 주변의 제요소가 끼치는 맥락적 요인을 수용하는 방법론으로써 언급한 복합적, 대립적 건축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Robert Venturi, 앞의 책, 2004, pp.96-97

고 하였다. 이는 복잡, 다변하는 현대의 시대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복잡적, 대립적 건축을 주장한 것이다. 현대의 도시적 상황에서 충돌하는 건축의 대립적 요소들은 복잡적 건축관에 의해 전체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건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개개의 건축적 요소의 관계를 통해 전체를 중시하는 맥락적 관점을 토대로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맥락적 사고를 기반으로 건축의 전체성 추구를 위해 그가 복잡성과 대립성의 이론을 추구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벤투리는 건축의 대립적 요소들을 하나의 전체로 묶기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건축적 질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환언하면 건축적 질서는 맥락적 관점에서 복잡한 건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는 건축적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건축적 관습을 강조하였다. 건축적 관습은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규격화된, 진부한 요소 등을 통칭한다. 이들은 동시대인들의 사회, 문화적 공유를 전제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인자들이다. 따라서 그가 관습적 요소를 통해 전체적인 하나의 건축을 추구한 것은 공시적, 통시적 관점에서의 맥락적 사유를 토대로한 것이다. 또한 그는 현대 도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 사인 등의 일상적 요소를 중요시함으로써 건축적 질서에 의한 맥락적 사고를 도시적 관점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셋째, 벤투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건축 내외부공간의 역할과 물리적 접점으로서 파사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근대건축가들이 내외부를 맹목적으로 연결하여 공간적으로 흐르도록 의도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파사드(외부벽면)의 건축적 효과를 통해 내부적 요구를 수용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였다. 내외부공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파사드를 수단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함으로써 맥락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 부연하면 그가 건축의 내적 요인들과 주변 환경적 요인들을 복합적, 대립적 건축관을 통해 건축물의 파사드에 수용한 것은 맥락적 관점이 건축 사고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넷째, 벤투리는 통시적, 공시적 관점에서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대중적이고 일상적 요소 등을 건축의 상징을 통해 해석, 표현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동시대의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맥락적 가치들이다. 부연하면 그는 건축의 상징을 통해 맥락적 가치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공시적 관점에서 라스베가스 대로변 건물들의 파사드의 상징적 체계를 현시대의 시스템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도시의 대로변에서 마주치는 저속하고 일상적 요소들은 맥락적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본질적 요소인 것

이다. 요컨대 벤투리는 건축적 상징을 통해 일상과 과거로부터의 연상작용을 통해 풍부한 맥락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벤투리의 주요한 건축적 사고는 맥락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역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한 벤투리의 맥락적 사고는 복잡적·대립적 건축, 상징적 건축으로 대표되는 그의 건축관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는 벤투리의 활동 초기를 대상으로 맥락적 사고를 고찰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후기의 이론과 작품에 나타나는 변화적 사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작품에 나타난 맥락적 표현 및 해석 특성을 파악한다면 본 연구에서 고찰한 이론적 부분과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시공문화사, 2001
2. 김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3. Capon, Smith. D, Architectural Theory Vol.2 John Wiley & Sons, 1999
4. C. Ray Smith: Supermannerism, Clarke Irwin Comp, 1977
5. John W. Cook and Heinrich Klotz: Conversation with Architects, Praeger, 1973
6. Robert A. M. Stern, New Direction in American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1977
7. Jencks, Charle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현대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 백석종 외 5인 역, 태림문화사, 1999
8. Moneo, Rafael,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ies in the Work of Eight Contemporary Architects, 라파엘 모네오가 말하는 8인의 현대건축가, 이영범 외 3인 공역, 공간사, 2008
9. Tuan, Yi-Fu, Space and Place,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대운, 2005
10. Venturi, Robert,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임창복 역, 동녘, 2004
11. Venturi, Robert 외 2인, Learning from Las Vegas, 라스베가스의 교훈, 김정신 외 1인 공역, 태림문화사, 1983
12. 주우일, 맥락주의에 입각한 지역적 건축물형태 계획규제 방법, 경상대학교 박사논문, 1997
13. 박형진, 쉘츠의 실존적 공간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건축 실내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2008
14. 이동연, 벤투리의 맥락적 사유의 재활성화를 통한 맥락적 설계 기법들의 제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0. 12
15. 진정, 현대 미국건축의 Contextualism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3. 8
16. 동정근, 맥락주의 건축, 공간, 1990. 8
17. Venturi, Scott Brown and Associates, 원대연, 플러스문화사, 1992
18. Robert Venturi, "Diversity, Relevace and Representation in Historicism or Plus ca Change..." Architectural Record, June. 1982

[논문접수 : 2009. 08. 31]
 [1차 심사 : 2009. 09. 20]
 [게재확정 : 2009. 10. 09]